

'뿌린대로 거둔다'자연의 섭리는 사라지고

발로 딛는 잠녀의 삶-한림읍 금능리

등록 : 2006년 12월 24일 (일) 15:12:22
최종수정 : 2006년 12월 24일 (일) 15:12:22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 금능리 포구

바다만 보서는 계절을 구분하기 어렵다.

모처럼 소라 수매가 이뤄진 금능리 어촌계회관은 모여든 사람들만큼이나 활기차 보인다. 멀리서는 그저 북적이는 모습인데 가까이 다가가니 뭔가 느낌이 다르다.

일본 수출을 위해 물건을 사들이는 업체 쪽에서는 계속해 작은 '물건'을 골라내라는 말이 서릿발처럼 떨어지고 막상 소라 수매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남자들.

△'뿌린 만큼 거둔다' 자연의 섭리가 맞지 않아도

양식장 해체에 맞춰 나잠을 하는 금능 잠녀는 89명, 상시 잠녀만 40명 안팎이 된다고 했다. 물이 빠져 나간 금능 바다는 허연 속살을 곱게 드러낸다. "관광객들도 형제 해수욕장인 줄 알고 잘못 찾아온다"는 말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백사장이 곱게 깔린 푸른 바다는 눈에는 고왔지만 이곳 바다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은 아닌 듯 했다.

예전에 어촌계장을 지냈다는 마을 원로 양경영씨(68)는 "모래 바다인 탓에 바다에 의지하는 것이 약한 편"이라며 "예전에는 날씨가 나빠도 20~30명씩 비양도로 가 물질을 했지만 지금은 과수원이나 밭농사로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3~4년 전만 해도 '물건'이 좋아 잠녀들도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지금은 소라도 연간 1300~1500kg 정도 거둬들이는 것이 전부다. 지난해만 해도 3만2000㎡의 전복 종패를 바다에 뿌렸지만 이 곳 바다 역시 '뿌린 만큼 거둔다'는 자연의 섭리가 거짓말이 돼버렸다.

양용익 어촌계장은 "종패를 뿌리고 4개월쯤 지나서 살펴봤는데 거의 보이지 않았다"며 "먹이를 찾아 이동을 한거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거의 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은 그래도 잠녀들의 '약속'으로 잘 관리된 바다에 큰 의지를 하고 있었다.

금능과 협재 경계에 위치한 '지미'바다는 두 지역 잠녀들의 암묵적 협의에 의해 잘 관리되고 있다. 다른 바다들에 비해 소라 등 해산물이 잘 난다는 지미 바다 작업은 2~3개월 간격으로 1년에 네 차례 진행된다.

작업일은 두 지역 잠녀들의 필요에 의해 정해지며, 같은 시간에 두 지역에서 출발한 어선이 만나 작업을 시작한다. 기준에 미달하는 해산물은 절대 잡지 않는다. '지미'바다 관리를 위한 정해진 내규는 없지만 오래전부터 두 지역 잠녀들끼리 지켜왔던 약속으로 아직까지 좋은 물건이 나는 바다로 남아있다.

△자구 노력 '부담'... '바다'만 남아

금능의 바다는 머물로 시작해(잠녀 취재 순서 기준으로) 빌레로 끝난다. 머물은 작은 돌이 쌓여서 만들어진 해안 형태고 빌레는 용암들이 넓게 펼쳐져 펼쳐진 형상으로 하고 있다. 수룡곶코지와 장수곶코지 등에는 제법 낚시꾼들이 찾는다. 물이 빠져나가면서 작은 돌들이 쌓여 만들어진 듯한 소원이 들려나고, 완전히 물이 빠지면 물이 없어지는 마른원이 보기좋다. 수룡곶코지 옆에는 늘 찬물이 나와 목욕 용도로 썼다는 '신물'과 상수도가 연결되기 전까지 식수로 사용했던 '든물'이 있다. 도란도란 크고 작은 이야기가 많았지만 '바다'이상은 못되는 듯 했다.

마을 여기 저기에 민박이 들어서 있지만 갈수록 이곳을 찾는 관광객수도 줄고, 찾는다 해도 잘 꾸며진 콘도나 펜션을 찾을 뿐 민박은 예전의 향수만 간직하고 있었다. 유어선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내년도 수익 사업으로 3.5~4t규모의 '어장관리어선'을 구입해 비양도 잠녀들의 도선세 부담을 줄이고 어촌계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내놓기는 했지만 어촌계 부담이 커 다음으로 돌렸다.

어촌계획관 주변이 도시계획법 상 자연녹지구역으로 설정, 냉동창고 등으로 활용해봤으면 하는 어촌계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양 어촌계장은 "20년전인가 툇 양식을 시도해본 적이 있었지만 잘 안됐다"며 "지금은 툇 가격이 잘 안나와 하루 일당 '1만원'도 겨우 채우고 있을 정도"라고 사정을 설명했다.

물이 빠진 바다는 투명한 겨울 바람에 쌓여 그 고운 쪽빛을 자랑한다. 여느 때면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 놓아야 다시 새 것이 채워지듯, 다시 바닥을 채우는 기분좋은 상상도 할 수 있으려면 갈수록 고운 모습에 더 가슴이 시리다.

'발로 달는 잠녀들의 삶' 다음 이야기는 한림읍 협재리이며, 관련 내용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 (www.haenye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능향원 입구

* 한림읍 금능리 '능향원'

금능리에는 유교식 포제와 분향을 한 곳에 모아 둔 '능향원'이 있다.

잘 정리된 이곳에는 매년 음력 정월 보름을 전후해 마을 포제를 지내는 포제단이 있다. 마을 포제를 지낼 때는 18~20명의 제관을 선발해 3일 동안 일체 외부와의 접촉을 금한다. 여자들의 경우 제물을 준비하는 극소수의 인원만이 능향원 출입을 할 수 있다.

해신당은 아니지만 이곳 분향당은 지금은 매립된 소항물에 있던 것이 옮겨진 것이라고 한다. '기가 센 할머니'를 모신 분향당과 멀리 떨어져 상대적으로 기가 약한 할아버지를 모신 '소항당'도 있다.

여기에는 너무 기가 센 할머니를 피해 할아버지가 딴 살림을 살았고 죽어서도 따로 살고 있다는 전설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곳 분향당에는 제수로 돼지고기는 올리지 않는 대신 닭고기를 올린다.